



이름:

WEEK 7

Feb 10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을 떠난지 삼 개월이 되던 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애굽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가지였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을 잘 듣고, 내 ()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한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본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10가지 계명을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기 전에, 조건없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2절을 써 보세요. (십계명에 순종해야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Feb 11

출애굽기 21장

본장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민법을 말씀하십니다. 1-11절은 종에 관한 법, 12-36절은 개인의 상해에 관한 법들입니다. 오늘날에 이 법은 성도들에게 문자 그대로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계시하기에 중요합니다. 율법은 기본적으로 고대사회의 종에 대한 관습을 용인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보호하시는 규정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또한 개인적 상해에 관한 율례를 주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사회에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율법의 규정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새겨 저희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출애굽기 22장

본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시민법을 기록합니다. 개인 재산의 보호에 관한 법(1-15절),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의 보호에 관한 율례(16-31절)입니다. 백성들에게 특별히 압제나 학대하지 말고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21-24절)

Feb 12

출애굽기 23장

본장 20-3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 1) 20절: 내가 사자를 ()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 2) 23절: 내 사자가 () 너를 인도하고
- 3) 27절: 내가 내 위엄을 ()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출애굽기 24장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계명을 준행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할 때 손가락을 걸기도 하고, 도장도 찍고 계약서도 쓰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표시로 무엇을 했나요? (7-8절)

Feb 13

출애굽기 25장

시내산에서 40일을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짓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칠 예물의 종류와 태도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과연 광야생활 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 놋, 각종 실들과 가죽 등의 소유물들이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출애굽기 12:35-36절에서 찾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6장

본장은 성막의 천장덮개(1-14절), 성막 둘레의 널판(15-30절), 휘장(31-33절), 휘장문(36-37절)에 대해 설명합니다. 성막의 천장 덮개는 4중으로 되어있는데, 가장 안쪽에는 흰 세마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그룹을 수놓아 만든 천이 씌워졌고, 그 위에는 염소털로 만든천(Wool)을 덮었습니다. 그 위에는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었고(14절), 맨 위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14절). 염소털로 만든 덮개는 그 아래의 4색 천을 보호하고 다른 것들과 분리하는 거룩한 구별을 의미합니다. 붉게 칠해진 수양의 가죽은 희생 제물되신 예수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을(빌 2:8), 해달의 가죽은 외양상 조금도 아름답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은데,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보기에 흠모할만한 것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4중으로 된 성막의 덮개는 그리스도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우리는 죄와 분리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수 있습니다.

Feb 14

출애굽기 27장

본장은 번제단(1-8절), 상막의 뜰(9-19절), 성막 안 등불(20-21절)을 설명합니다. 제사장들은 증거궤(지성소) 앞 휘장 밖에서(성소)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밤에만 불을 켜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24시간 불이 켜져있도록 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했다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전합니다. 20절에 "() 등불을 켜라."는 말씀을 따라서 일것입니다. 이 등불은 창 하나 없는 성막 안을 언제나 환하게 밝혀주는 유일한 빛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언제나 밝히 비추시고 보고 계시며 생명과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8장

본장은 제사장의 옷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보석에 열 두 지파의 이름을 새겨 대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달게 했습니다.(9-12절).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을 새김같이 너는 ()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백성들의 약점이나 실수가 무엇이든 간에 그들의 이름은 제사장의 흉패 위에서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어깨와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도장처럼 새겨 기억하시고 가슴에 품어주셨음을 잊지 마세요.

Feb 15

출애굽기 29장

본장 38-46절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드릴 번제에 대해 기록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외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를 () 네게 ().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출애굽기 30장

본장은 분향할 제단(1-10절), 속전(11-16절), 놋 물두멍(17-21절), 거룩한 향기름(22-33절), 거룩한 향(34-38절)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스무살 이상된 자들은 생명의 속전에 대한 규정을 보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지불하였습니다.(15절) 이 속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소유권자가 되셨음을 상기시키는 거룩한 세금이었습니다. 지식이나 경험이나 재능이나 경력이나 열심이나 헌신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겠지만, 구속의 비용, 예수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으니, 범죄치 않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